

호남대, AI특성화 선도대학 ‘우뚛’

3년연속 국가서비스대상 수상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 공로
산학협력 선순환 모델 구축

국내 유일의 ‘AI 특성화대학’ 호남대학교가 전국대학 중 최초로 구축된 AI 캠퍼스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국내 최고권위의 ‘2022 국가서비스대상’ 시상제에서 3년 연속 ‘대학-AI(인공지능) 특성화부문 대상’의 영예를 차지하는 등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

19일 호남대에 따르면 최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시상제에서 호남대는 AI융합 혁신교과과정 개편과 AI캠퍼스 구축을 통해 전교생을 AI융합인재로 양성해온 노력을 인정받았다. 또 ‘AI대중화 교육’ 선도 등 탁월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학-AI특성화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호남대는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도 이 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국가서비스대상은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국민들에게 널리 사랑받고 있는 우수 서비스를 선정하는 시상제로 ▲서비스 경쟁력 및 비전 ▲산업적·사회적 기여도 ▲운영성과 ▲지속 가능 경영계획 평가 등의 엄정한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국내 최고의 AI특성화대학을 3년 연속 공인받은 호남대는 AI 전문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 산학협력 등을 통해 정부의 ‘AI국가전략’, 광주시의



호남대학교는 최근 ‘2022 국가서비스대상’ 시상제에서 ‘대학-AI특성화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박상철 호남대 총장(앞줄 왼쪽에서 네번째) 등 수상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호남대 제공

‘AI중심도시’ 전략에 발맞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가고 있다.

호남대는 지난 2019년 총장 직속으로 ‘AI중심대학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AI교육센터와 AI빅데이터연구소를 두 축으로 AI융합캠퍼스를 구축, 전교생을 AI융합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이어왔다.

특히 AI캠퍼스는 전교생이 15학점 이상의 AI교과목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는 혁신적인 교육과정 개편과 맞물려 전국대학 최초로 구축됐다. 12개의 AI전용 강의실과 스마트 강의실, 노트북과 전자교과 등 최첨단 교육시설과 장비를 자랑한다.

이중 AI교육센터는 AI기초프로그래밍과 딥러닝 기본교육, 영상·음성·언어인지 기술, 자율주행 자동차 센서 기술 등을 구현하는 SW개발 실습장으로, AI빅데이터연구소는 AI융합·AI연계응용기술(의료·헬스케어·스포츠 등), 빅데이터 및 응용(통계·플랫폼 포함), IT기술 전반(IoT·임베디드·클라우드·로봇·드론·이

동통신 등)의 연구 산실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에도 스마트제조고급인력양성사업과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LINC3.0)사업 선정과 함께 40개 전학과 300여명의 교수들이 기업과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상품개발과 첨단 기술지원 등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나서고 있다. 이와함께 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양성을 통해 학생들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을 제고 위한 ‘산학협력’ 선순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박상철 호남대 총장은 “1978년 ‘육영보국’을 설립이념으로 반세기 동안 시대를 앞서 혁신 교육을 이끌어온 호남대학교가 개교 50주년을 앞두고 ‘드림(DREAM) 2028’ 장기발전계획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며 “전교생을 AI융합인재로 키워 ‘넥스트 챔피언’을 양성하고 인프라 확충, 산학협력 등을 통해 ‘학생이 꿈을 이루는 행복한 대학’의 비전을 실현해 국가와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

동강대, ‘모듈형 트랙제’ 교육과정 도입

공학계열 7개 학과 참여

융복합 인재 육성 목표

동강대학교가 AI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 실력 있는 융복합 인재 육성을 위해 학생 중심의 ‘모듈형 트랙제’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19일 동강대에 따르면 2023학년도부터 공학계열 7개 학과를 AI융합전공 교육과정 모듈형 트랙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트랙제는 ▲AI융합기계과 ▲AI드론과 ▲AI융합전기과 ▲AI미래자동차과 ▲스마트건설토목과 ▲건축과 ▲소방안전과 등 7개 학과가 참여한다.

동강대는 모듈형 트랙제를 기반으로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자연스럽게 정착시켜 사회 트렌드에 맞는 다재다능한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다.

표다. 학생들이 입학 시 전공 학과에 제한하지 않고 학과별 세부전공으로 구성된 트랙을 자신의 진로에 맞게 자유롭게 선택한다.

즉,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학과에 편성된 트랙으로 학점을 이수하거나 전공과 상관없이 타 학과의 트랙 교육과정 수업을 함께 이수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강대 교육혁신원은 학과별 세부 전공 과목인 모듈과 모듈로 구성된 트랙을 2~3개씩 편성하는 등 매뉴얼을 개발했다. 또 공학계열 7개 학과와 함께 학생들의 니즈를 반영한 트랙제 세부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동강대는 트랙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프로그램이 정착되면 모듈 1개씩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전공을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등 트랙제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최환준 기자



전남대, ‘산학협력 육성사업단’ 설명회

전남대학교가 공유와 융합으로 미래 가치를 창출하게 될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단(LINC 3.0)’ 설명회를 갖고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다.

19일 전남대에 따르면 LINC 3.0사업단은 최근 4차례에 걸쳐 전남대 광주캠퍼스와 여수캠퍼스에서 LINC 3.0 참여학과 단과대학 부학장 및 개별 참여학과 학부(과)장, 전임교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LINC 3.0 사업설명회 및 공청회’를 가졌다.

LINC 3.0 사업은 미래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융합인재 배출’, 기술혁신을 통한 ‘기업가형 대학전환’, 산학연이 동반 성장하는 ‘공유·협업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글로벌 기술혁신선도대학을 목표로 운영된다.

기술혁신 선도를 위한 공유·협업 가치창출을 위해 산학협력커넥트센터 구축과 기업협업센터를 중심으로 기술이전·사업화, 글로벌 교류 및 대내외 산학연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환준 기자

지스트, 게임 시뮬레이션 AI 기술 개발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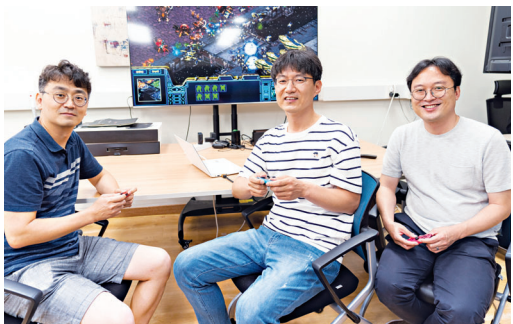
문체부 연구개발 사업 선정

지능형 NPC 제작 등 진행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의 융합기술 전문가들이 온라인 게임 시뮬레이션을 위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나선다.

19일 지스트에 따르면 지스트 융합기술학제 학부에서 문화기술을 연구하는 김경중·홍진혁 교수와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기술을 연구하는 김승준 교수가 이끄는 게임 인공지능 연구센터는 최근 ‘2022년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오는 2024년까지 총 30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온라인 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게임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연구



왼쪽부터 홍진혁·김경중·김승준 교수

과제를 수행한다.

연구팀은 ▲사람처럼 플레이하는 지능형 NPC 제작 ▲멀티플레이어 게임을 위한 협력형 인공지능 에이전트 생성 ▲인공지능 기반 게임 콘텐츠 자동 생성 및 검증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게임 제작 및 업데이트 검증 시뮬레이션

연구·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진이 개발할 게임 시뮬레이션 기술에서는 인공지능 플레이어를 이용해 사람이 플레이했을 때의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다.

AI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제 사람들이 플레이한 결과가 유사하다면, 이를 활용해 새로운 콘텐츠를 사람들이 어떻게 플레이할 지 사전에 알아볼 수 있다.

김경중 교수는 “게임 제작과정에서 기획자와 개발자는 게임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많이 고민한다”며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공지능을 게임 제작에 활용하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게임 시뮬레이션 기획과 제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전남도교육청, ‘전남사다리교사단’ 발족

다문화가정 대입진학 지원

전남도교육청이 유관 기관·단체와 함께 교육취약계층인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교육사다리 복원에 나섰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전남도, (사)밥알꿈과 함께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진학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전남사다리교사단’ 발족식을 가졌다.

이날 발족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옥경 사단법인 밥알꿈 이사장이 참석해 코로나19로

무너진 취약 계층의 교육력 회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다짐했다.

전남사다리교사단은 (사)밥알꿈 회원인 전남지역 교사 2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도내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고른기회 전형을 통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진학 상담 및 멘토링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전남사다리교사단은 지방에서는 최초로 대입 분야에 지식과 경험을 갖춘 현직 교사들로서, 다문화가정 학생을 일대일 맞춤 지도에 나서게 된다. /최환준 기자

M 전남매일 | 장애인 학대 신고 캠페인 |

장애인학대 지금 신고하세요!

신고전화 1644-8295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을 때릴 때



장애인이 싫어하는데 억지로 몸을 만질 때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장애인에게 욕을 하거나
무서운 말을 하며 괴롭힐 때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 보호하지 않고
버렸을 때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 식사를 안 주거나,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돈을 빼앗거나,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을 때

장애인학대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1 신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2 조사를 합니다.



3 피해자를 도와줍니다.
의료·심리·거주·사법·복지



4 잘 지내는지
확인합니다.



언제
신고하나요?



장애인에 대해
해당하는 일을 겪었을 때
장애인학대를 발견하였을 때

어떻게 신고하나요?

장애인학대신고전화
1644-8295로 전화합니다.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하나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합니다.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design by 소나무